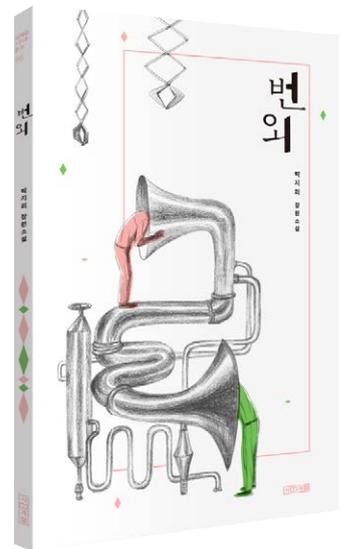

번외

작성 이성균(시흥 함현고등학교 교사)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성지현(시흥 군서고등학교 교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1318문고 115
박지리 장편소설

■주 제 어 #소통 #이해 #대화 #자기존중 #인정 #사랑 #삶 #죽음 #추모 #책임 #관심 #긍정적_에너지

■분 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선정 내역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도서 소개

번외!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 사고 이후 소년은 혼자 살아남은 행운을 얻은 사람이 되지만 모든 것에서 예외 취급을 받는, 삶 자체가 번외가 되어 버린 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의 탄생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사람은 없다. 살아가는 일, 죽는 일까지도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고뇌할 수밖에 없다. 가끔 자신의 죽음이나 타인의 죽음을 결정하려는 시도가 있긴 한데 이 경우 우리를 감싸는 관습과 제도의 굴레는 그 행위에 비난과 조롱의 명을 썩운다. 그리고 그 시도에서 벗어난 이들-소설의 소년처럼-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한다. “교복을 보니까 그 학교 학생 같은데. 맞죠?”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살아남은 자를 알아본 지극히 윤리적이고 정상적인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표지가 된다. 그들은 추모제사 이렌과 함께 '3분의 묵념'을 했음을 감동의 순간으로 강조하며 위로의 손길을 보낸다. 그 3분이 각자 자신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강조하며 희생된 자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아울러 살아남은 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부추긴다. 이런 일상화된 위로와 격려가 적절한지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소년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삶과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다. 인간이 왜 삶을 지속해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의 죽음은 애도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묻는다. 그래서 K를 파렴치한 살인마로 적극적인 비판을 하지 않으며, 희생된 사람들의 삶을 감성적으로 미화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소년은 우리 인간 모두가 고민하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는 것'의 의미를 자신의 상처에 맞대어 고민하며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소년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운명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화분증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한 도움 메시지 종이를 버리지 못하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하여튼 되게 살고 싶어한다니까”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인물이다. 주변의 동정이나 위로, 죽은 이들의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속의 외침을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도 모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학습 목표

모두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체와 중심은 자기 자신이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타인과의 교류와 소통으로 더 탄탄해지는 삶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는 자세와 힘이 되어 주는 관계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읽으며 다음 질문에 답을 찾아봅시다.

- 1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 2 주변에서 힘겨운 일을 경험한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자세는 무엇일까?
-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행위는 그들만의 책임일까?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자유' 사용 계획에 대한 기자 간담회	1차시
독서	- 내용 이해: 사이렌 소리의 의미,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용 정리하기 - 적용 활동: 주인공이 만난 인물 평가하기, 추모에서 중요한 것은? - 생각 나누기: 그동안 나는 어떻게 추모를 했었는가 되돌아보기	2~5차시
	- 등장인물 성격 분석: 등장인물 관점으로 반성문 쓰기 - 구절의 상징적 의미 파악: '살고 싶어 한다'의 의미 파악	
	- 소설 내용으로 토론 논제 만들기: 논제의 조건에 맞춘 논제 제작 방법	6차시
	- 토론 준비: 역할 분담과 모둠별 논제 분석 - 디베이트 토론 하기: 논제에 대한 찬반 토론	7, 8차시
독서 후	〈글쓰기 활동〉 주인공의 트라우마 벗겨 내기	9차시
	〈피드백 활동 및 삶의 내면화 활동〉 베드로 신부님이 되어 메시지 만들기	10차시

1차시

독서 전-'자유' 사용 계획에 대한 기자 간담회

인간은 자기를 놓고 자기 스스로가 그려 보는 그 무엇이며,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그 무엇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제1원칙, 즉 주체성의 원칙이다. (생략) 주체성이란, 인간은 먼저 실존한다는 것, 우선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를 던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 보고 그대로 몸을 던진다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철학』, 천재교과서, 흥운기 외 10인, 85쪽)

1.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와 삶을 포기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자유'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삶이 시작함과 동시에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학급 친구들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봅시다.

[진행 방법]

1. 5인 1조로 모둠을 편성합니다.

2. 각 모둠에서 기자와 인터뷰이 역할을 나눕니다. (기자 4명, 인터뷰이 1명) 그리고 인터뷰 할 주제를 선정합니다. 인터뷰 주제는 인터뷰이의 인생에서 닳치게 될 미래의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 고교 진학, 대학 생활, 결혼, 취업 등 먼 미래를 설정할 수도 있고 지필고사, 체육대회, 가족 여행 등 가까운 시일 내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3. 역할을 정한 뒤, 각 모둠에는 4명의 기자만 남고 인터뷰이들만 모여 하나의 모둠을 이룹니다.

4. 10분 동안 각 모둠의 기자들은 질문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동안 인터뷰이들은 각자 자신의 모둠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자유' 사용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모두 마친 뒤에 다시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가 모입니다.

- 기자들은 질문 목록을 작성할 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당신의 식구는 몇 명입니까?"와 같은 단순 정보 관련 질문들은 제외합니다. 질문은 인터뷰이의 사고, 감정, 신념, 일상적 선택, 목표, 가치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5. 5인 1조로 다시 모인 모둠에서 인터뷰(기자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10~15분)

- 인터뷰이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질문에 대해 사려 깊고, 정직하게, 주의 깊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한 질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거나 적게 이야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자신이 작성한 '자유' 사용 계획서를 단조롭게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활동지를 참고하여 기자들과 대화를 하도록 합니다.

6.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 간담회 결과를 기사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각 학급에 게시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각 모둠의 기사문을 읽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선생님께 제시된 사르트르의 글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삶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삶 이후에는 누군가가 정해 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미래 속에 매 순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지하게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자신이 왜 주인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이용 '자유' 사용 계획서 양식>

기자 간담회 주제(나의 인생에서 벌어질 미래 사건): 예시) 체육대회		
미래 사건을 대하는 나의 자세	자유 사용 계획 (구체적인 행동)	예시) 나는 나의 미래에 벌어질 2019년 체육대회에서 ~한 선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유	왜냐하면 ~

■ <기자 간담회 결과 기록지>

기사 제목:
기사 부제:
기사 작성자:

※ 80쪽까지 읽고 활동하기

1. '사이렌 소리'는 왜 울려 퍼진 건가요?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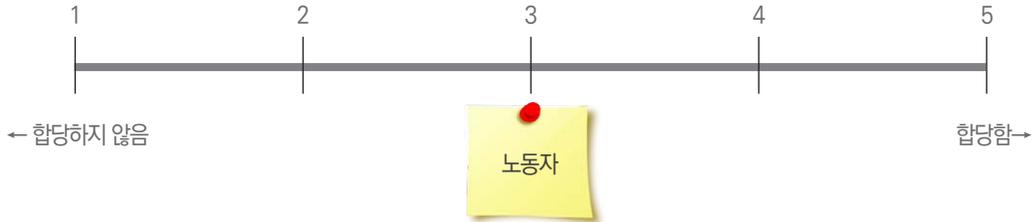
2. 주인공은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사이렌 소리를 들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공간	만난 사람	알게 된 내용
공사 현장		
학교		
영화관		
병원		
동물원		

선생님께 추모를 위한 사이렌이 울릴 때, 주인공이 만난 인물이 왜 동참했는지와 '3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인지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주인공이 깨닫게 되는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공간	만난 사람	알게 된 내용
공사 현장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참 이유: 죽은 아이들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동참함. ▶3분: 공사 현장에서 3분 동안 전원을 멈추는 것은 큰 손해를 보는 일임.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이 죽어도 전원을 끈 적이 없음. ▶깨달은 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1. 모둠 칠판에 아래의 그림을 그리고, 주인공이 만난 사람들 중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 이유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을 아래처럼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도 말해 봅시다.



만난 사람	점수	이유	근거

선생님께 4~5명으로 이루어진 모둠을 구성합니다. 인물에게 점수를 줄 때는 꼭 4점, 5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3.5점, 2.7점 등 소수로 된 점수를 줘도 됩니다. 단, 자신이 부여한 점수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점수를 줄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근거는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는 모둠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의 예시입니다.

저는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공사현장의 노동자에게 3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학생들의 추모를 위한 3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동료의 죽음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의 3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빨리 잊고 수습하려는 데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2.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3분’ 동안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묵념’을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추모할 때, 시간이 중요할까요? 행동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총 1만원의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돈을 적절히 나누어 가격을 정해 봅시다.

구분	가격	이유
시간		
행동		
마음		

3. 여러분은 그동안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의식(묵념)을 하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임했나요? 혹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진 않았나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

.....

.....

.....

.....

.....

.....

.....

.....

‘나’는 경찰서에서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나’가 쓴 반성문	경찰이 원하는 반성문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문을 쓰게 된 이유는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선생님께 ‘경찰이 원하는 반성문’에는 주인공이 공원에 갔다가 화분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간 일, 응급실에서 도망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된 사건 등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인물의 행위에 따른 심리와 태도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합니다.

독서 - 끝까지 읽고 활동하기
구절의 상징적 의미 파악: '살고 싶어 한다'의 의미 파악

'살고 싶어 한다'가 반복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보고 생각한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4쪽	거 되게 살고 싶어 하네		
54쪽	저건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 같잖아.		
79쪽	하여튼, 되게 살고 싶어 한다니까.		
128쪽	하여튼 되게 살고 싶어 한다니까.		

1. 소설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K는 사형을 시켜야 할까?
 자살은 온전히 홀로 선택하는 자유인가?
 인간은 자기보존에 일치하는 욕망만 지니고 있는가?

선생님께 질문은 토론을 하기 위한 논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질서나 상태에 대해 생기는 의문과 의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토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때 토론 활동을 염두에 두고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토론을 위한 논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첫째, 긍정적인 평서문으로 진술할 것.
 둘째, 현 상태의 변화를 의도하거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내용으로 진술할 것.
 셋째, 찬반 대립이 뚜렷한 문장으로 기술할 것.
 넷째, 하나의 주장만을 담고 있는 문장으로 기술할 것.
 다섯째, 찬반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중립을 유지한 내용으로 기술할 것.

1) 빈칸에 적절한 어휘를 넣어 논제를 완성해 보십시오.

홍약법을 처벌하는 _____는 정당하다.
 _____과 생존에 대한 욕구는 비례한다.
 _____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_____사회의 증거이다.

2) 짝과 함께 온전한 하나의 문장으로 논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논제	
----	--

1. 토론 모형에 따라 모둠별로 제1, 2, 3토론자의 역할을 나누어 보십시오.

토론 모형 및 설명						
	찬성 측			반대 측		
순서	제1토론자	제2토론자	제3토론자	제1토론자	제2토론자	제3토론자
1	입론(3분)					
2	모둠별 협의(2분)					
3				교차조사(2분)		
4				반론 및 입론(3분)		
5	모둠별 협의(2분)					
6	교차 조사(2분)					
7		반론(3분)				
8					반론(3분)	
9	모둠별 협의(2분)					
10	자유 토론(5분)					
11	모둠별 협의(1분)					
12						최종 발언(2분)
13	모둠별 협의(1분)					
14			최종 발언(2분)			

일반적 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토론 시간이 시작된 후 메모지를 수령 입론, 반론, 최종 발언(순서 1, 4, 7, 8, 12, 14): 사회자 앞에 나와서 판정관을 보며 발표 메모지를 들고 나올 수 있으나 지나치게 보고 읽으면 감점 모둠별 협의(순서 2, 5, 9, 11, 13): 자리에 앉아서 진행함. 준비 자료 볼 수 있음. 메모지에 메모 가능 교차조사(순서 3, 6):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자리에 앉아서 진행 자유 토론(순서 10): 자리에 앉아서 진행
--------	---

순서 1	찬성 측 입론 (제1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적절하고 타당한 논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세우는 단계 ○ 논제 등장 배경과 논의 범위, 용어의 개념 등을 설명하며 시작할 수 있음 ○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을 설명 ○ 찬성 측 모둠원 전체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작성 ○ 원고를 읽지 말고 함께 준비하고 공부한 내용을 자연스러운 화법으로 발표
순서 2, 5, 9, (11,13)	모둠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 측 논리의 모순과 허점을 찾아 반론 내용을 상의하고 자기 측 주장을 보완, 강화하는 회의를 진행함 ○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 ~ 이미 발언이 끝난 토론자도 적극적으로 참여 ○ 다음 발언자에게 반론 및 보완 내용을 제시 ○ 순서 11, 13은 직후 발언 팀(순서 12, 14)이 요청할 경우에만 시행(사회자가 확인)
순서 3, 5	교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발언 내용, 의도, 모순과 허점 등을 질문의 형태로 확인하는 단계 ○ 질문은 질문 측 모든 토론자가 할 수 있고, 답변은 발언을 한 토론자만 가능 ○ 질문은 자기 측 반론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한 것으로 구성 ○ 질문을 받는 측(상대 측)을 바라보며 대화 형식으로 질문 ○ 답변자는 질문의 내용에 자기 측 주장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답변
순서 4	반대 측 반론 및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대 증명을 하는 단계 ○ 찬성 측이 제시한 논증을 모두 언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이 있을 경우 반론(순서 8)까지는 모두 언급해야 함 ○ 교차조사에 확인한 내용을 연계하여 구성함 ○ 반대 측 첫 번째 반론은, 찬성 측 논증을 언급했다면 자기 측이 준비한 입론을 제시할 수 있음

순서 7, 8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단계까지 나온 상대 논증에 대한 반증과 자기 측 논증에 대한 보완 및 강화를 수행하는 단계 ○ 논증 구조를 기본으로 상대 측의 이유나 근거에 대한 부정을 한 후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반증의 의무) ○ 자기 측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보완하고 증명함
순서 10	자유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론, 교차 조사, 반론의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 측과 직접 질문하고 반박을 하며 자기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단계 ○ 양측이 자유롭게 발언, 답변, 반박을 진행함 ○ 어느 한 측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독점하지 않으며 상대 측을 배려하며 주도적인 토론을 교대로 이끌어 가야 함 ○ 토론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함 ○ 1, 2, 3 토론자가 자신의 발언 시간 외 교차조사와 자유토론에서 발언 시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권장함. 특히 발언 시간이 2분인 3토론자 비중이 높은 것이 좋음
순서 12, 14	최종 발언(제3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자기 측의 주장을 판정관에게 인상 깊게 제시하는 단계 ○ 미흡한 반론을 추가할 수 있음 ○ 단순 요약이 아니라 토론의 흐름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함 ○ 판정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비유나 호소를 담을 수 있음

선생님께 1)번 항목은 실제로 토론을 하기 전 차시에 미리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할을 주고 2)번 문항의 논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차시에 만든 토론 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기>와 같이 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십시오.

<보기>

논제	살아남은 소년에 대해 사회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찬성	쟁점	반대
'관심'은 상처 받은 사람에 대한 위로와 위안이다.	'관심'의 개념	'관심'은 괴로운 일을 환기하고 고통을 증가시킨다.
관심은 생존자의 행위의 책임을 덜어 주는 장치이다.	행위의 책임	관심은 트라우마에 대한 행위의 책임과 고통을 생존자에게 부여한다. (공범 의식 유발)
관심은 살아남은 소년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가치 간 우선 순위	관심을 보이는 것은 위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사회 제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은 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가능하다.	실현 가능성	사회 제도를 통한 살아남은 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불가능하다.
살아남은 소년을 치유하는 것은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을 추구하여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	이익과 효과	살아남은 소년을 위로하는 관심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은 없다.

선생님께 학생들이 토론 준비를 위해 논제를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지점을 쟁점으로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의견을 정리하게 합니다. 실제 토론 때는 쟁점별로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조사하도록 사전에 유도해야 합니다.

논제		
찬성	쟁점	반대
	의 개념	
	가치 간 우선 순위	
	실현 가능성	
	이익과 효과	

1. 논제에 맞춰 토론을 해 보십시오.

선생님께 3명씩 한 모둠을 형성하여 주어진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논제를 바꾸어 가면서 구성원들이 모두 토론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토론을 몇 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논제			
찬성		반대	
① 입론 []		② 교차조사	
④ 교차조사		③ 반론 및 입론 []	
⑥ 반론 []		⑤ 반론 []	
자유 토론			
	[쟁점 1]		
	[쟁점 2]		
	[쟁점 3]		
	[쟁점 4]		
⑧ 최종 발언 []		⑦ 최종 발언 []	

2. 평가 항목에 맞춰 토론을 평가해 보십시오.

논제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였는가?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한가?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가?
주장과 근거의 연결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지니는가?
상대방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이나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9차시

독서 후 -〈글쓰기 활동〉 주인공의 트라우마 벗겨 내기

참고 자료 1과 2를 읽고, 주인공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보십시오.

참고 자료 1: 타인은 나의 지옥

우리가 우리에게 대해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고 애쓸 때 사실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에게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한다. 타인들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그리고 타인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나에게 관하여 내가 무엇을 말할지라도 그 안에는 타인의 판단이 들어 있다. 이 점은 나의 관계들이 좋지 않을 경우 나는 완전히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사실상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점이 타인과 다른 관계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점은 우리들 각자에 대해서 모든 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 장 폴 사르트르, 희곡 『달린 문』 디스크 머리말 녹음 중

참고 자료 2: 타인은 나의 천국

다른 사람을 떠받치고 그를 책임지는 것은 나다. 거기서 주체가 생기고 그런 주체 안에서, 다시 말해 완전히 종이 되는 가운데 나는 제일인자로 탄생한다. 내 책임은 끝없고 아무도 나를 대체할 수 없다. 사실 참다운 나의 정체성은 책임성에서부터 생긴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식 안에 내가 일인자로 자리 잡는 것, 아니 다른 사람을 향한 책임성으로 자신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속에서 참다운 내가 선다. 책임성은 내게만 부여되고, '인간적으로'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담은 돌도 없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존엄이다. 나는 돌도 없는 자다.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다. 책임자로서 나는 나다. 책임에서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내가 주체로서 뗄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란 그런 것이다.

- 엠마누엘 레비나스, 프랑스 방송 대담 「필립 네모와의 대화」 중
(중학교 창의 지성 『더불어 나누는 철학』, 이수광 외 10인, 경기도 교육청, 67쪽)

주인공은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인간은 누구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 것도 욕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인공이 베드로 신부님을 만난 대목입니다. 이를 읽고 베드로 신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인공에게 설명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지 내용을 작성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베드로 신부만의 방법을 설명하는 메시지 내용도 적어 봅시다.

베드로 신부가 웃으며 들고 있던 파일을 자루 위에 올리는 순간, 맨 위에 놓여 있던 감자들이 시멘트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진다. 신부가 감자를 줍기 위해 무릎을 꿇혀 쪼그려 앉았다. 신부는 감자는 땅에 떨어져서 흙집이나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좋은 채소라면서 내일은 매시트포테이토를 만들어 볼까요, 한다.

이렇게 낙천적인 인간이 있다는 건 어쩐지 불공평한 것 같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같은 나라, 같은 장소에 있는데 왜 혼자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혼자만 죽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얼굴일까. 그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고 싶다.

그건 안 될 거예요.

아, 역시 우리 한국인 입맛에 매시트포테이토는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신부님은 내일 아침 여기 없을 테니까.

내가 왜 내일 아침 여기에 없죠? 나는 26년째 이곳에 있었어요. 난 여길 떠날 생각이 없어요. 이젠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나는 감자를 줍는 척 앉아 신부에게로 바짝 다가간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부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믿으셔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신부님을 죽이자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 죽어 올 거예요.

하하하.

별안간 큰 웃음을 터뜨리는 신부. 영문을 모르겠어서 물끄러미 쳐다보니 신부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혹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 아니던가요?

맞아요.

그 사람들, 6년 동안 그렇게 살인 모의만 하고 있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들킨 적 있죠. 아직도 저를 낮에 죽일 건지, 밤에 죽일 건지를 두고 대답하고 있던가요? 대체 실행은 언제 할지. 하하하.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할 게 무언가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기로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살인당하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살해돼 죽는 거예요. 인간의 숨을 거두어 가는 손길은 다 살인 아닌가요?

(『번외』, 132~133쪽)

A series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handwriting practice.